

보도설명자료 (’22. 9. 5)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수소충전소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수소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9.5일자 한겨레 「2시간 줄서기 일췌·절반 충전 제한, 수소차 차주들
‘충전 대란’에 한숨」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강원도 등에서 수소 공급 감소, 수소차 급증, 충전소 부족 등의 사유로 수소 충전 대란이 발생 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부는 수소충전소의 수소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지난 8.25(목) 수소수급상황 점검회의에 이어, 9.1(목)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수소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수소수급 대책반을 구성(8.26일) 하여 수소 출하시설 가동현황, 수소 유통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현장점검반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음
- 또한 생산·출하시설의 조기 가동, 산업용 수소의 수송용 전환 등 관계기관, 업계와 협력하여 수소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하여 검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평택 생산기지 일부시설(0.5톤/일)은 8월말부터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삼척 생산기지(0.5톤/일)는 9월 중순부터, 시설이 증설된 여수 출하센터(4톤/일)는 이번주 중 수소를 공급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산업용 중 수송용으로 전환 가능한 물량에 대해 수소유통사, 정유사 등과 협의하여 9월 중 추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음

- 특히 추석연휴에 수소충전소의 수소 부족으로 귀성길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를 통해 비상상황반 운영, 실시간 현황 제공, 고속도로 충전소 중점 관리 등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관련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소충전소의 수급 상황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문의 : 수소경제정책과 이옥현 과장(044-203-3950) / 정대환 팀장(3951)
/ 한혜원 사무관(3954)